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 도 자 료 | 보다 나은 정부 |
|---|---|---|

**2019년 6월 27일(목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 26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19. 6. 25.(화) | 담당부서 | 무역진흥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이상준 과장(044-203-4030) | 담 당 자 | 진승덕 사무관(044-203-4035)<br>홍성진 주무관(044-203-4036) |

#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전시회 · 무역사절단 등 하반기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

## - `19.하반기 412회 해외전시회 · 무역사절단 집중 지원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지역 수출기업**이 **해외마케팅**을 통해 하반기 어려운 **대외여건을 극복**하고 **신규 수출선을 개척**할 수 있도록, **`19년 제2차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**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, 유관기관과 함께 **하반기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방안**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.

**《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개요 》**

- 일시 / 장소 : '19.6.26(수) 15:00 ~ 16:30 / 동대구역 케이티엑스(KTX) 회의실
- 참석대상 : 산업부(무투실장 주재), 중기부, 농림부 등 7개 관계부처, 17개 광역지자체, 무역협회, 무역투자진흥공사, 중기중앙회,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0개 수출 유관기관

□ (**총력지원**) 먼저, 정부는 올해 **하반기 412회 해외전시회·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**해 지역 수출기업의 **해외진출을 총력 지원**하기로 하였다.

○ 특히, 수출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화장품·패션 등 **소비재 분야**를 중심으로 하반기 **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215회**를 집중 지원하고,

○ 바이오헬스·로봇 등 신(**新**)**수출성장동력**과 자동차·조선·기계 등 **주력산업 분야**에도 **전시회·사절단 197회**를 추진해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.

○ 또한,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적합기업을 연결하는 **글로벌 파트너링**과 **해외지사화·수출바우처** 등 주요 해외마케팅을 활용해 **하반기 3,100개 수출기업**을 대상으로 **전략적 신흥시장·틈새시장 진출을 지원**한다.



< 주요 마케팅 하반기 지원규모 >

| 주요 마케팅 | 하반기 지원규모 | 주요 지원분야 |
|---|---|---|
| 해외전시회 | 297회 전시회 | • 화장품·패션·유아용품 등 소비재 135회<br>• 신수출성장동력 및 주력산업 162회 |
| 무역사절단 | 105회 사절단 | • 신남방·신북방·중동 등 신흥시장 75회<br>• 북미·유럽연합·일본 등 주력시장 30회 |
| 수출바우처 | 약 565개사 | • 내수 120개사, 수출초보 110개사, 수출유망 110개사, 글로벌 강소 130개사 등 |
| 글로벌파트너링 | 약 1,100개사 | • 러 조선해양, 미 차부품 등 14회 상담회 |
| 해외지사화 | 약 1,500개사 | • 신남방 327개사, 신북방 119개사, 북미180개사 등 |

□ (**통합한국관**) 정부는 **해외전시회 참여성과**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**국제가전박람회(CES)·모바일 월드 콩그레스(MWC)** 등 22개 글로벌 유망 전시회를 대상으로 한국관 통합을 추진한데 이어, **올해 34개 해외전시회에** 추가로 **통합한국관을 구축**한다.

○ (소비재) 특히, 한류와 함께 **현지 바이어의 관심**이 높은 **호치민 섬유산업전**(국내 60개사 참여, 11월), **광저우 캔톤페어**(26개사 참여, 11월) 등 **소비재 전시회를 중심**으로 **올해 34개 통합한국관*을 추가 구축**해 **바이어 모집·기업간 시너지** 등 전시효과를 높인다.

< 통합한국관 추가 구축 주요 해외전시회 >

| 분 야 | 주요 전시회 |
|---|---|
| 소비재 | • 호치민 섬유산업전(60개사, 11월) 광저우 캔톤페어(26개사, 11월), 파리 춘계 텍스월드(40개사, 7월), 홍콩 식품박람회(42개사, 8월) 등 |
| 자동차 | • 슈투트가르트 자동차전(12개사, 5월), 모스크바 자동차전(21개사, 8월) 등 |
| 기계·기자재 | • 방콕 기계 전시회(40개, 11월), 두바이 건축 기자재(76개사, 11월) 등 |

○ (전략산업) 이와 함께, **지역 전략산업과 연계**하여 **지역 유망기업의 해외진출**을 강화하기 위해 **지자체와 산업부**가 **충북 프리미엄 소비재**, **경남 항공우주** 등 관련 해외 전시회 참가를 **공동 지원**하여'**지역 전략산업 통합한국관**'을 구축한다.

| 분 야 | 예 시 |
|---|---|
| 지역 전략산업 통합한국관(`20) | • 충북 - 프리미엄 소비재 - 중국 상해 국제수입박람회(11월)<br>• 경남 – 스마트 조선해양 – 다롄 조성해양전시회(4월)<br>• 경남 - 항공우주·드론 - 프랑스 파리 글로벌 메이져 에어쇼(6월) |

○ (동반진출) 그간 중소기업들이 지속 요청해왔던 **대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**을 강화하기 위해 **가스공사·발전자회사** 등 **에너지 공기업**과 **지역 기자재 중소·중견기업**이 미국 휴스턴 해양기술박람회(5월) 등 유명 전시회에 **`동반진출 통합한국관'**을 조성하고 공기업의 인지도·납품 실적 등을 활용한 바이어 공략을 지원한다.

| 분 야 | 예 시 |
|---|---|
| 동반진출 통합한국관(`20) | • 미국 휴스턴 해양기술박람회(5월) : 가스공사-울산시-중기부<br>• 캐나다 캘거리 석유가스전(6월) : 가스공사-산업부<br>• Power-Gen USA(12월) : 발전6사-기계산업진흥회-산업부 |

□ (**전략사절단**) 내년부터 **최대 105개 기업과 12개 지자체·유관기관**이 참여하는 **대규모 전략사절단**을 추진하여, **지역 수출기업과 대규모 해외바이어와의 매칭**을 강화하고 **수출성약 효과**를 높일 계획이다.

○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**전략 무역사절단**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**현지 시장 분석**을 통해 **유망국가와 품목을 선정**하고 **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기획**하는 사절단으로,

○ 신남방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**한류 소비재, 미(美) 틈새시장, 자유무역협정** 등 기회요인을 공략하는 **42회 사절단을 파견**하여 **1,253개 기업**을 지원한다.

< `20년 전략 무역사절단 주요 국가별 추진계획 >

| 분야 | 신남방 | 신북방 | 북미 | 중동 | 중남미 | 기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파견횟수 | 15회 | 7회 | 7회 | 4회 | 3회 | 6회 |
| 기업수 | 411개사 | 120개사 | 166개사 | 105개사 | 110개사 | 341개사 |
| 유망품목 | 소비재<br>자동차부품<br>기계부품 | 소비재<br>의료기기<br>농기자재 | 소비재<br>항공부품<br>기계부품 | 플랜트<br>자동차부품<br>소비재 | 소비재<br>자동차부품<br>전력기자재 | - |
| 참여 지자체·기관 | 45개 기관 | 13개 기관 | 19개 기관 | 10개 기관 | 11개 기관 | 32개 기관 |

– **신남방 지역**은 **한류 소비재**(화장품 등)와 제조업 육성에 따른 **자동차·기계부품·정보통신** 등 중심으로 **15회 사절단에 411개 기업을 파견**하고,

– **신북방 지역**은 최근 현지 수요확대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**소비재, 의료기기, 농기자재** 분야에 **7회 사절단, 120개 기업을 파견**한다.

– **북미 지역**은 소비재 분야와 함께, 납품선 변화가 예상되는 **항공부품·자동차부품** 등 중심으로 **7회 사절단, 166개 기업을 지원**한다.

□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**박태성 무역투자실장**은 "대외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으로, 수출활력촉진단을 통해 **현장애로를 신속히 해소**하는 한편, **디지털 무역 인프라 구축**(7월), **수출 시장구조 혁신**(7월)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**수출구조 혁신을 강화**할 것"이며,

○ "특히, 이러한 수출대책을 **지역 기업이 체감**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**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을 강화**하고 **지자체·유관기관과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**해 나갈 것"이라고 강조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진승덕 사무관(☎ 044-203-40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